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6차 세션 , 구약의 성전

© 2024 데이브 매튜슨 및 테드 힐드브란트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6, 구약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다음 주제는 성전 또는 성막의 주제입니다.

에덴 동산도 포함시키고 싶은데,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에덴 동산은 성전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주제를 다른 주제에서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원은 창조와 땅에 관련된 주제였지만, 정원도 성전의 주제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전과 성막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구약에서 역사적으로 분명히 별개의 실체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함께 다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고 성전은 더 영구적인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매우 유사한 목적을 위해 기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막이나 성전에 대해 따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때로는 둘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때로는 주로 성전을 언급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저는 종종 정원을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에덴 동산과 성전과 장막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목적을 위해, 성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더 있지만, 성전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사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을 중재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심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했으니, 성전을 이해하고 다루기 위한 출발점은 창세기 1-3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2장과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대해 조금 더 길게 이야기했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세션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에덴 동산은 성소가 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이 현존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이 그의 백성인 아담과 이브와 함께 거주하는 장소였습니다.

사실, 구약학자 고든 웬햄은 한 기사에서 에덴 동산의 기능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에덴 동산을 단순히 메소포타미아 농장의 한 조각으로 보지 않고 원형적 성소, 즉 신이 거하고 인간이 신을 경배해야 하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이 동산의 많은 특징은 후대의 성소, 특히 장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점은 동산 자체가 일종의 성소로 이해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 단어를 없애고 싶습니다. 그 정원이 실제로 성소였다는 말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살았던 성전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성소, 하나님이 인류와 함께, 그가 창조한 최초의 사람들인 아담과 이브와 함께 거하신 성전 정원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창세기 1장의 본문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고 거주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뿐만 아니라, 고든 웬햄의 인용문에서 말했듯이, 구약성경에서 나중에 묘사된 장막과 성전과 에덴동산에 대한 묘사, 그리고 사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 자체 사이에 여러 가지 다른 유사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강조하려는 것은 반드시 내 자신의 관찰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지적인 관찰과 에덴동산과 구약성경에서 나중에 묘사된 장막과 성전 사이의 유사점에 관한 관찰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미 먼저 에덴동산과 장막과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서 신성한 현존의 장소,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고 계신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장막이나 성전에 계시다는 표현과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은 모두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신성한 현존의 장소입니다.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두 번째는 성막과 성전의 장식에 대한 설명을 읽을 때입니다. 종종 나무와 식물이 벽에 새겨져 있거나 벽에 새겨져 있거나 특정한 것들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성전에도 해당됩니다.

성전에 새겨진 나무와 식물과 그 가구 중 일부는 식물, 특히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반영하도록 의도된 것으로, 그 동산이 생명과 풍요의 장소라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아마도 성전을 밝힌 등잔대조차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창조의 빛뿐만 아니라 성전의 등잔대, 즉 생명나무를 상징하도록 의도된 촛대도 반영했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출애굽기 25장의 성막에서 생명나무는 우리가 이미 창세기 2장 9절에서 언급한 대로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막에 대해 읽기 시작할 때, 25장, 31절부터 시작하여,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고, 그 밑받침과 자루를 두드려서 만든다. 그 꽃 모양의 잔, 꽃봉오리, 꽃은 그것과 한 조각이 되어야 한다. 등잔대 옆에서 여섯 개의 가지가 뻗어 나와야 하는데, 한 쪽에 세 개, 다른 쪽에 세 개이다.

꽃봉오리와 꽃이 있는 아몬드 꽃 모양의 잔 3개가 한 가지에 있고, 다음 가지에 3개가 있으며, 등잔대에서 뻗어 나온 여섯 가지 모두에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등잔대에는 아몬드 꽃, 꽃봉오리, 꽃 모양의 잔이 네 개

있습니다. 등잔대에서 뺀어 나온 첫 번째 가지 쌍 아래에 꽃봉오리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꽃봉오리는 두 번째 가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이해하셨겠죠. 등잔대는 아마도 식물이나 첫 번째 창조의 열매를 반영하는 듯하고, 아마도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를 반영하는 듯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결, 세 번째 연결은 금이 성막과 성전의 구성에 사용된 귀금속인 구성의 주요 특징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촛대, 즉 램프 스탠드에 대한 설명에서 그것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를 펴서 방금 읽은 그 부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읽는다면, 금이 성막의 구성에서 중요한 금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특정 본문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열왕기 상 5-7장을 읽거나 훑어보면 성전 건축에서 금이 곳곳에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한 구절만 읽어도, 금이 성막의 구성에서 차지하는 주요 특징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5장 7-17절.

여기서 보자. 7절부터, 오닉스, 돌, 그리고 다른 보석들이 홍갑의 에봇에 장착되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위한 성소를 만들게 하고, 나는 그들 가운데로 끌어들여겠다.

이 장막과 그 기구를 내가 네게 보여 줄 모양대로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상자를 만들게 하여라. 길이가 두 큐빗 반, 너비가 한 큐빗 반, 높이가 한 큐빗 반이 되게 하여라. 안팎으로 순금으로 입히고, 그 둘레에 금으로 틀을 만들어라.

금 고리 네 개를 주조하세요. 31절로 넘어가 등잔대 설명의 시작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고 망치로 두드려서 만드세요.

따라서 금은 장막과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된 주요 금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금이 에덴 동산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

장에서 저자가 주변 지역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2장 10절부터 동산을 적시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고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네 개의 상류로 나뉘었다. 첫 번째 상류의 이름은 피손이다. 그것은 금이 있는 하윌라의 온 땅을 관통한다.

12절, 그 땅의 금은 좋다. 그래서 금은 에덴 동산과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금은 에덴 동산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금속이고, 에덴 동산의 맥락에서, 그리고 지금은 장막과 성전에서 중요한 금속이다. 이것은 성전, 장막 성전, 에덴 동산 사이의 연결, 의도적인 연결을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구약 학자들이 여러 번 알아본 또 다른 하나는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데, 아담은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장 15절. 흥미롭게도, 이 두 단어는 구약에서 나중에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의 의무를 설명하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민수기 3장 7절과 8절은 그들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뒤로 물러서겠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레위 지파를 데려와 제사장 아론에게 보여 그를 돕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회막에서 그와 온 회중을 위해 의무를 수행하여 장막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회막을 위한 모든 장막 가구를 돌봐야 합니다.

또한 민수기 18장에도, 18장과 5장 5절과 6절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의무를 언급하면서, 너희는 성소와 제단을 돌보는 책임을 져야 하며,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 동료 레위 사람들을 뽑아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에서 일하도록 여호와께 바쳤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동산에서 해야 할 일, 그것을 경작하고 돌보는 일 사이에 연관성을 발견한다. 영어로 번역된 방식이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민수기에서 제사장들이 장막에서 해야 할 일과 같은 단어들이다.

또 다른 연결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금과 관련하여 방금 읽은 구절에서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정원을 적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47장 1절과 2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이 구절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과 관련하여 이미 살펴본 본문이지만, 에스겔 47장은 성전, 즉 회복된 성전의 맥락에 있고, 에스겔 47에서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정원을 적신 에덴에서 강물이 흘러나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을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에덴 정원의 강가에 심은 나무와 에스겔 47에서 강가에 심은 나무 사이에는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흥미롭고 의도적인 것 같은 것은 신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읽을 때입니다. 그는 동쪽에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43장의 회복된 성전에서, 에스겔 43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40절에서 47절 전체에서, 환상에서, 회복된, 회복된 성전, 재건된 성전에 대한 미래의 환상입니다. 43장에서, 저자가 41장과 42장에 이어서, 저자는 기본적으로 성전과 그 치수에 대한 환상적 여행을 하며, 다른 부분들을 봅니다.

그런 다음 43장에서, 에스겔서의 앞부분에서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임재가 이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43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런 다음,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이 나를 동쪽을 향한 문으로 데려갔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급류의 포효와 같았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3장 24절에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거나 추방당할 때, 24절에서 그가 사람을 쫓아낸 후, 아담과 이브를 쫓아낸 후,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과 번쩍이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동쪽 방향과 관련된 것은 에덴에서 동산의 입구가 동쪽에서 온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 43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전을 채우는 것은 동쪽 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연결은 에덴 동산이 성전과 성막을 반영하도록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나, 반대로 성막과 성전이 에덴 동산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에덴이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성소,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였으며, 따라서 이제 성전과 성막은 그것을 복제하거나 반영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성전과 성막은 에덴의 미니어처 정원입니다.

존 월튼은 창세기의 잃어버린 이야기에 대한 책에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주의 성전, 거주할 성소를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레그 비얼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목적은 결국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확장하여 온 세상을 포용하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 에덴 성소에 있는 그의 성전 장막의 임재, 아담과 이브의 일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그 이상으로 확장하여 창조물 전체를 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 유대교의 종말론적 문헌을 읽을 때, 제 생각에는 에녹 2세와 3세와 같은 곳에서 아담은 종종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묘사됩니다.

한 종말론적 텍스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세키나 영광이 정원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번쩍이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구약 중간 문학에서도 때때로 에덴 동산이 성전, 성소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아담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제사장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그의 첫 번째 성전으로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조사와 에덴 동산을 성전이나 성소로 묘사한 내용을 결론지어 보면, 저자는 성전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사는 성소로 묘사하고 묘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 다음 아담과 이브는 에덴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전과 성전과 성막과의 연결로 입증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성막과 성전은 에덴 동산의 복제품인 듯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동산 성소에 대한 이 설명, 아담과 이브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대한 설명이 나온 후,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임무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임재의 성소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와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정원 성소에서 추방됩니다. 우리가 3장 24절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그룹, 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의 동쪽 입구를 지키는 천사와 같은 형상에게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이브는 성전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이후에 제기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과 함께 거하며 자신의 현존을 재건하고 결국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의도했던 대로 창조물 전체를 포용하도록 확장할 것인가입니다. 하지만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므로 이야기에 일종의 혼란이 생겼고 이제 갈등이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를 해결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자신의 거처로 삼아 우주 전체에 인간과 함께 거하시려는 의도를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글썄요, 이를 살펴보는 한 가지 방법은 나머지 신약 성경이 계속되면서,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단계나 단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매우 광범위한 붓놀림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의 딜레마를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주요 움직임이나 주요 단계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에 걸쳐 확장될 인간과 함께 우주에 자신의 현존을 재건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요 단계는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오는 성막의 건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그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출애굽기 후반부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여정을 하는 동안 그들과 함께 할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합니다.

이제 다시, 저는 성막의 구조와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할 장비나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지만, 기본적으로 성막은 둘러싸인 안뜰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안뜰 안에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 더 큰 천막과 같은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장소와 우리가 지성소라고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백성을 만나신 곳은 지성소였습니다.

요점은 이것이 임시 구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철거하여 이동할 때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4인용 텐트나 2인용 텐트나 무엇이든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작업이었을 것이지만, 이것은 그들이 이동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임시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건설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히 모세에게 장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지을 것인지 지시하신 기록이 있고, 이스라엘이 성소와 장막을 짓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33절에서 장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세우고, 뜰 입구에 휘장을 걸었고, 그래서 모세는 일을 마쳤습니다.

34절,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장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구름이 그 위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장막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하는 모든 곳에서,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오를 때마다 그들은 출발했지만,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르는 날까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름이 낮에는 장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집 안에서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내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장막 건축이 끝날 때,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장막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다시 확립하려는 의도와 관련하여 장막에 대한 몇 가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셨던 곳이지만, 동시에 장막의 건축 자체와 방금 읽은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서 읽은 내용은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의미에서 제한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에덴 동산에서처럼 모든 창조물과 동등하거나 모든 사람이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만, 제한된 방식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과의 연관성을 언급했고, 그것은 장막입니다. 그것은 장막을 본떠 만든 정원이 아니라, 제가 잠시 전에 언급했듯이, 아마도 그 반대일 것입니다. 장막은 아마도 에덴 동산을 본떠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거처였기 때문에, 장막은 이제 또 다른 에덴, 혹은 축소판 에덴입니다. 이제, 장막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의도하신 바가 이제 말하자면 성막 동산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관찰과 다른 많은 구약 학자들이 성막에 대해 말한 바에 비추어 볼 때, 성막은 또한 전체 우주, 전체 창조물의 축소판이 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과의 연관성을 알아차렸고, 저는 존 월튼이 1장, 세상의 창조조차도 적어도 한 수준에서 성막, 성막의 건축이 되도록 의도되었다는 주장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은 온 세상이 되어야 할 것의 일종의 축소판으로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전체 우주, 전체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막의 건축이, 그리고 성전의 건축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싶은데, 결코 그 자체로 목적이 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나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 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창조물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현존을 가리키고 기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가기 위해, 우리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에 대한 그의 저서에서 Greg Beal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 그는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이 결국 온 우주를 채울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상기시키는 작은 규모의 모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렉 비얼은 그곳에서 성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성막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막은 기본적으로 이동식 성전이었고 성전은 더 영구적인 성막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주요 단계는 하나님께서 창조물과 세상에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재확립하실 것인가입니다. 그분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첫 번째 주요 단계는 성막 에덴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유형의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곳이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의도가 결국 온 세상을 포용하도록 그분의 임재를 확장하려는 것을 예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 단계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넘겨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읽지 않겠지만, 나중에 섹션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성전 자체의 건축과 설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열왕기 상 5-7장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원래 타작마당이었던 장소를 확보했고, 그 위에 성전이 결국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약속하셨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그렇게 지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5-7

장에서 우리는 마침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어떻게 장막에서 성전으로 갔을까요? 장막은 결국 실로로 옮겨졌고, 거기에 세워졌고, 사무엘의 이야기 등과 관련하여 실로를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 신은 성전을 버리고,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했듯이,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더 영구적인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막의 특징이 이제 성전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곳이지만, 다시 한 번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것을 설명합니다. 신약의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첫째,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성전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둘째, 우리는 성전과 에덴 동산 사이의 연관성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마찬가지로 성전은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성소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는 성전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도 성막과 마찬가지로 전체 우주의 축소판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의 존재가 특정 구조물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창조물과 동등하게 퍼져나가기를 의도하셨다는 사실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시편 중 일부는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라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현존이 온 지구를 포함하도록 확장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84편, 시편 84편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의 거처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사모하고, 심지어 기진합니다.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찾았고,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등지와 당신의 제단 근처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며, 당신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항상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힘이신 자들은 복이 있나니, 바카 골짜기를 지날 때 순례에 마음을 둔 자들이여 .

그들은 그것을 샘이 있는 곳으로 만들고, 가을 비는 또한 그것을 연못으로 덮습니다. 그들은 힘에서 힘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가 주님 앞에 나타날 때까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며,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며,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이며, 당신의 방패를 보시고, 당신의 기름 부음받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당신의 궁정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 날을 보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는 악한 자의 천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은혜와 존귀를 베푸시나이다. 그는 흠 없는 행실을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나이다. 전능하신 주여, 당신을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특히 첫 구절에서, 당신의 거처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주목하세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높이거나 찬양하거나 성전을 거처로 여기는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편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물리적 구조물로서의 성전 자체뿐만 아니라 온 지구를 포함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타락과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성전을 버리시고, 그의 임재는 성전을 버리시고, 성전은 외국인에 의해 파괴됩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땅과 성전,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면전이 에덴을 버리지 않는 듯하고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성서 이야기에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버리고, 그의 임재는 성전을 떠납니다. 에스겔서의 처음 몇 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록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인 성전을 떠난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땅, 정원, 성전에서 추방되거나 추방당하고, 외국 포로들에게 점령당합니다. 이제 구약의 예언 문학으로 넘어갑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될 때를 예상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 상징,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상징 . 그리고 아마도 가장 광범위한 설명은 에스겔 40-48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미 몇 개의 섹션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40-48에서 적어도 40-47은 종말 성전의 건축과 하나님의 현존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47장에서 우리는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8-10장을 비추어 이해해야 합니다. 타락과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것은 에스겔 8-10장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는 동쪽에서 그것을 떠나 에덴과 또 다른 연결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43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동쪽 문에서도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서 유배된 후, 에스겔과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의 성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 들어가거나 땅과 성전으로 회복될 때를 예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한 번 그의 백성과 함께 그의 성전에 들어와 거주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신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에스겔 40-48장의 자세한 설명은 열왕기상 5-7장의 설명과 일부 세부 사항과 매우 흡사합니다.

에스겔의 성전에 대한 환상은 후자의 환상을 훨씬 능가하지만, 요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그의 임재를 어떻게 회복하고 새롭게 하실까요? 그리고 이제 아담과 이브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어 창세기 1-2장에서의 그의 본래 의도를 성취하시는 성전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나중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신약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기 시작하여 절정에 도달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구약은 이스라엘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과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의 임재에 대한 기대로 끝나며, 이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되어 온 지구를 채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덴 동산이 성소가 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마치 성전이나 장막이 되도록 의도된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소를 돌보는 곳이 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악으로 인해 아담과 이브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추방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을 회복하실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상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그의 임재를 회복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장막을 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가지고 다니는 임시

장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장막이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언젠가 온 우주에 스며들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장막의 더 영구적인 버전이었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시 에덴 동산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의미였지만,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온 창조물을 포용하도록 확장되는 것을 예상하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고, 그의 임재가 그의 백성 가운데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담과 이브가 죄악으로 인해 ,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산에서, 땅에서, 성전에서 추방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추방된 후에 ,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나 예를 들어 스가랴와 같은 다른 선지자들이, 새롭게 회복된 성전, 즉 성막과 성전의 성취뿐만 아니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갱신을 기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백성과 함께 그의 임재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살고 거하실 회복되고 새롭게 된 성전에 대한 예언적 기대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용 하는 여러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질문의 일부는 신약성경에서 발견되는 성전 언어가 단지 일종의 상징주의와 은유인지 아니면 구약성경의 성취를 상기시키는 것인지입니다. 여러 본문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선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약속, 즉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몇 가지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런 다음 바울 문헌으로 넘어가서 바울 자신이 성전 이미지와 성전 언어를 사용하여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는 여러 곳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 서신 외의 신약성경에 있는 다른 서신 몇 개를 살펴보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다시 한 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시작하여 구약과 신약에서 발전하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절정을 이루는 주제의 대부분을 이어받기 때문에 종종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이 나오는 복음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했듯이 구약의 약속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 교회, 혹은 완성된 새 창조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약속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약속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런 다음 그리스도와 결합됨으로써 그의 백성 안에서도 성취됩니다. 그리고 저는 신약에서 에덴 동산과 성전의 임재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먼저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즉, 회복된 성전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은 이미이지만 아직은 아닌 긴장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전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확장하여 그의 백성 안에서도 성취되었으며, 그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어 중 일부 또는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도 성전이 됩니다. 하지만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창조에서 성전의 궁극적인 회복을 발견할 때 아직은 차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의 백성과 함께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복음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복음서와 복음서의 세 구절에 주의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그 중 하나는 마태복음에 있고 두 개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고 요한복음에는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두 가지 흥미로운 언급으로 시작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은 마태의 책인 탄생 이야기와 유아 이야기의 일부로서, 마태복음 1장은 18절에서 예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천사가 그에게 와서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마태는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선지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일어났다고 덧붙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다음 마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도록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을 설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형상으로 거주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땅에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책이 끝나는데, 이 문장의 끝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처음과 비슷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유명한 구절에서 마태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끝납니다. 마태는 이렇게 끝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는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거주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상하는 듯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이제 복음서의 다른 두 본문, 즉 요한 복음서입니다.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이 제가 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장.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구약의 다양한 제도나 사물을 가리거나 대체하거나, 더 나은 방법으로 성취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이제 2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거나 정화하시는 맥락에서입니다. 그런 다음 18절에서 유대인들이 그에게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일을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기적적인 표적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유대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사흘 만에 세우려고 합니까? 21절, 그러나 그가 말씀하신 성전은 그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미 예수의 몸을 성전과 동일시하거나 예수가 이제 성전을 대체하거나, 더 나은 말로 예수가 성전이 의도한 바를 성취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는 의도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2장에 도달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읽도록 준비시켜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복음서의 소위 서론으로, 기본적으로 복음서의 나머지 부분을 읽도록 준비시키는 기능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유일하신 분의 영광 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자주 읽는 본문이며, 때때로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종교적 색채가 있는 카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효과는 크리스마스에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핵심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 단어는 종종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이며, 심지어 천막이나 장막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임시 거주하셨다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오셔서 잠시 동안 천막을 세우신 후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구약과의 연결을 완전히 놓쳤다고 생각하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을 놓쳤습니다. 즉, 요한은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과의 연결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어 동사인 *tabernacled* 또는 *dwelt*는 영어 번역이 어떻게 번역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약에서 성막이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스어 단어는 아마도 *dwelling*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Mishkan* 과 거의 동등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5장 9절에서. 출애굽기 25장 9절. 이 장막과 그 모든 가구를 내가 보여 줄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라. 그리고 실제로 레위기 8장. 몇 권의 책과 장 뒤에, 레위기 8장 10절. 그리고 나서 모세는 기름 부음 과 기름을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하여 그것들을 성별했다.

그리고 여기의 그리스어 단어, 거했다 또는 장막을 쳤다는 동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셨던 장막을 묘사하는 그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요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일시적으로 거주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거한다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구약에서 장막과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다음 단어인 영광도 구약에서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곳의 성막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이라는 단어는 다시 한 번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의 임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와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본문은 에스겔 43장입니다.

에스겔 43장에서 처음 일곱 구절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과 동쪽을 향하는 것과 관련하여 몇 구절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두 단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동사 거하셨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같은 두 단어, 거하다라는 동사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에스겔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거하거나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하여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천사가 나를 동쪽을 향한 성전 문으로 데려갔고, 나는 영광,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음성은 급류의 포효와 같았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빛났다. 내가 본 환상은 그가 그 성을 파괴하러 왔을 때 내가 본 환상과 같았고, 내가 키바르 강가에서 본 환상과 같았고, 나는 얼굴을 숙였다. 주님의 영광이 동쪽을 향한 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려갔고,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을 때, 나는 성전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자야, 여기가 내 보좌의 자리요, 내 발바닥을 둘 자리다. 여기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요, 왕들도 그들의 음행과 생명 없는 우상으로,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처소들로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언어, 내가 살 곳, 그리고

영광의 언어는 모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반영되어 있다 . 그러므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예수의 지상에서의 일시적 또는 일시적 체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구약에서 성전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의 임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은 2장에서 예수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자신의 성전, 즉 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와 함께 거하실 것을 의도하셨고, 그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고 성전을 가득 채우신 장막과 성전에서 성취되기 시작했으며, 이스라엘이 유배된 후에도 예언자들에게서 예견되었고, 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도 예견되었습니다. 예언자들에게서 예견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실 것을 의도하셨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참된 성전에서 성취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현존이 지금 거하시는 곳이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는 사도행전을 간략히 살펴보고, 신약의 다른 문헌들과 그것들이 어떻게 성전 주제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의 것입니다. 이것은 세션 6, 구약의 성전입니다.